



가축전염병 발생정보

1998. 5. 13.
농촌진흥청
(0331)292-4295

농촌진흥청은 돼지 일본뇌염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.

돼지 일본뇌염

돼지 일본뇌염은 작은 빨간 집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임신한 돼지의 번식장애 및 사람에게는 뇌염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.

수의과학연구소에서 출하하는 돼지의 일본뇌염 항체검사 결과 일본뇌염은 주로 7월 이후에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따라서 요즈음 모기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증상

- 초임돈에서 주로 8~11월 사이에 유산, 사산을 한다.
-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초임돈이 감염되면 약 40% 정도가 유산 및 사산하게 되며 경산돈은 유산, 사산 등의 발병률이 낮다.
- 분만한 새끼중 일부는 경련, 마비, 선회운동 등을 보이다가 죽는다.
- 수태지는 고환염으로 정자수의 감소 및 수정률이 저하된다.
- 대부분의 육성, 비육돈은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.

2. 예방대책

- 모기 발생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.
 - 후보돈 및 초산돈에는 반드시 5~6월에 백신을 2~4주 간격으로 2회 근육이나 피하에 접종하고 경산돈과 종모돈은 매년 1회 접종한다.
- 돈사내외를 항상 깨끗이 하고 약제살포 등 모기 발생을 막는다. **養豚**